

■ 제주 마을-참여와 자치의 기록 <6> 마을 공동체

사람·건물로 마을 팽창했지만 참여 제자리

전통적 방식 마을회 결속 강화 한편 존폐 여부 걱정
새로운 공동체와 연대 모색 마을 먹거리 찾는 작업도

영어교육도시가 조성된 서귀포시 대정읍. 국제학교의 잇단 개교로 2011년 12월 31일 기준 1만6552명 이던 인구는 10년 뒤인 2021년 12월 31일 기준 2만2197명으로 갑절가량 뛰었다. 지난해 11월 말로 집계한 이 지역의 외국인 수도 1680명으로 나타났다.

인구수 변화는 영어교육도시 마을을 중심으로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구역리는 442명에서 1423명으로, 보성리는 495명에서 5012명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마을은 사람이 모여들고 새로운 건물이 생겨나며 팽창했지만 마을 참여도는 그에 비례하지 않고 있다.

대정읍의 A마을. 이곳에서는 제주도교육청에 2년에 한 번씩 문 닫은 학교에 대한 임대 연장을 신청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 애를 먹었다. 마을에 새롭게 터를 잡은 사람들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대면하는 일도 어려웠

던 탓이다. 10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마을 총회 승인을 받아 마을회에 가입해야 하는 조건도 작용했지만 평소 교류 기회도 거의 없었다. 모처럼 마을 단합대회를 열어도 이주민들은 무관심했다. 이 마을은 최근 원주민이 중심이 된 기존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을 정관을 손질하는 방안을 살피는 중이다.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70%가 이주민이라는 B마을. 이곳에선 인구가 크게 늘면서 일각에서 행정구역 분리를 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대로 마을을 지키며 살아온 원주민들에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이런 중에 마을 구성원들에 대한 운영비 납부가 검토되고 있는 점은 오래된 공동체의 위협 요인에 대처하려는 움직임 중 하나다.

토박이 청년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해 지금은 50세 이하 청년회원들이 10명 정도에 그친다는 C마을에서는 이사무소의 존폐 여



서귀포시 대정읍의 인구 증가를 이끈 요인 중 하나인 영어교육도시의 상가 지역.

부를 걱정하고 있었다.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유입 인구의 꾸준한 영향으로 큰 폭의 인구 감소는 없었지만 마을 발전, 마을 사업, 현안 해결 등을 꾸준히 이어나갈 마을 회의 동력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마을은 아직까지 그 이름 그대로이지만 과거 공동체의 모습이 언제까지 살아있을지는 미지수다. A마을은 마을 내 경제적 상황이 뒷받침되면서 젊은 층의 귀향으로 마을회를 꾸려갈 기반을 갖췄다지만 모두가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은 아니다.

근래 ‘핫한’ 지역으로 떠오르는 제주시 구좌읍의 D마을은 ‘함께’

를 고민하고 있다. 음식점, 숙박, 여행 등 마을을 배경으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정보를 주고 받으며 협업 과정을 통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보려는 것이다. 마을에 스토리를 입히고 지역 농부들이 밭에서 수확한 식자재를 이용한 메뉴 개발 등 귀촌한 이들과 더불어 마을이 성장할 수 있는 작업을 구상하고 있다. 마을의 크고 작은 단체들이 시대의 변화를 공동으로 헤쳐가기 위해 탄생했듯, 오늘날에도 뜻이 맞는 이들이 모인 마을 내 각종 공동체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분만에 자동 단속 서귀포시, 위반 잦은 대형마트 등 8곳·23면 대상

서귀포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해 실시간 자동단속이 가능한 주차관제 시스템 구축 사업을 5일 착수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미등록 차량 진입 시 차량번호 인식과 경고 안내를 통해 차량 이동을 유도한다. 실시간 영상 자료가 과태료 부과 시스템으로 전송돼 과태료 부과가 지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이다. 30초만에 1차 경고에 이어 또 다시 30초를 경과하면 2차 경고와 함께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건이 많은 공공체육시설, 대형마트, 관광지 등의 장애인주차구역 8곳·23면에 시스템을 구축한다. 7월 말까지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문제점 보완 및 시범 운영한 후 8월 중순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설치 장소는 서귀포시청 1청사, 향토오일시장, 성산항, 대정읍사무소, 국민체육센터, 서귀포중앙동우체국, 이마트, 대정농협 등이다.

시 관계자는 “주차관제시스템이 설치되면 실시간 계도·단속이 이뤄지며, 장애인주차구역 상시 확보 및 위반을 감소로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백금탁기자



단호박 수확 4일 제주시 애월읍을 납음리 한 농경지에서 농민들이 무더운 날씨속에 단호박 수확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7월 20~22일 헌옷 수집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와 서귀포시가 오는 20~22일 3일간 ‘헌 옷 수집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들은 ‘핫한 여름, 쿨하게 옷장을 열음’의 주제로 자원 재활용과 봉사활동을 연계한 헌 옷 수집 협업사업을 벌인다.

참여를 희망하는 서귀포시민은 사업 기간에 범환경로당 맞은편 ‘서귀포시 강정동 443’으로 방문해 배출하면 된다. 참여 시민에게는 배출한 헌 옷의 무게 측정 후 ‘1365자원봉사포털’ 회원에 한해 헌 옷 10kg당 자원봉사 활동인증 봉사실적 1건이 주어진다. 백금탁기자

코로나 장기화로 긴급복지 생계지원 급증

2019년 359건·4억2770만원… 작년 1530건·9억8648만원
서귀포시, 지원액 인상·재산기준 연말까지 한시적 완화

서귀포시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긴급복지 생계지원이 급증함에 따라 지원액 인상 및 재산기준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시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완화된 지원 기준을 적용해 신규 지원 대상자를 발굴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긴급복지사업 지원 규모는 2017년 297가구·2억8809만원, 2018년

144가구·2억2380만원, 2019년 359가구·4억2770만원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 906가구·6억8579만원, 2021년 1530가구·9억8648만원으로 급증했다. 또한 올해도 6월 기준 479가구에 3억130만원이 지원됐다.

이에 따라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 연말까지 ‘긴급복지지원사업’ 생계지원 금액 단가를 인상하고 재

산기준을 완화한다.

지원 단가는 1인 가구 기준 48만8800원에서 58만3400원으로 9만4600원(19.4%), 4인 가구는 130만4900원에서 153만6300원으로 23만1400원(17.7%) 각각 증액된다. 주거용 재산 1곳에 대한 4200만원까지 공제한도액도 신설된다.

지원 기준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384만810원) ▷재산 기준 중소도시(서귀포시) 지역 1억5200만원(주택소유자 1억 94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취약계층 건강한 여름나기 선제 지원

제주시, 그늘막 등 추가 설치
특별교부세 1억300만원 투입

제주시가 폭염기 취약계층 보호 등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억300만원을 투입해 선제적 예방에 나서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제주시는 우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관내 주요 도로 횡단보도, 교통섬 등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그늘막 30개를 설치하는 등 현재 총 253개를 운영 중이다. 이달에도 그늘막 6개를 추가 설치한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객들을 위해 버스승차대에 에어커튼 50개를 추가 설치했다.

노숙인 등 주거 취약가구 등을 위해선 더위를 피할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시지역의 무더위쉼터는 6월 기준 노인시설 265개소, 마을회관 24개소, 주민센터 19개소, 읍면동사무소 4개소 등 총 320개소에 이른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2000여명에게는 여름 이불을 지급해 어르신들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재난문자 전광판,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농·수·축산업 피해 예방, 야외 건설사업장 근로자 안전관리 강화 등 폭염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전선희기자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굴고리!

쉬운 높이조절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굴고리'가 있습니다!

굴고리의 장점

-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능
- 굴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 굴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 수확 후 회수도 간편.

굴고리 작업세트 구성

굴고리 + 고정판 + 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굴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수확기 때도 이젠 중성화 비료!

토양개량 및 토양 pH조절

보보

입상 100% 수용성

(10-5-25+특수물질 8종)

마늘·양파·더덕·감자·비데기 일때 300~400평 1포 사용

채색촉진, 식미감 향도 향상, 양분이용효율 향상, 보수력 및 보비력 향상, 자면역력증가, 수확량증가, 토양개량 및 토양 pH 조절, 양성한뿌리발육, 품질 향상

특수 칼리(K) 25% 함유!!

빨리 응출되는 칼리부터 천천히 방출되는 칼리까지 여러종류의 칼리가 들어있어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